

전투차량 만드는 우크라이나 정비공들

우크라이나 당국이 부족한 전쟁 물자를 서방에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 차량을 전투 차량으로 개조해 최전방으로 보내는 현지 정비공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나우뉴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남부도시 자포리자의 한 공장에서 일반 차량을 전투 용으로 개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30대나 개조해 전투차량으로 변신시킨 공장은 과거 보트와 카약 등을 만들던 업체다. 이들은 지난 2월 24일 개전 직후부터 뜻을 모아 최전선에서 러시아군과 싸울 수 있는 차량을 만들기 위해 땀을 쏟고있다.

개조 작업은 단순하지 않다. 먼저 자동차의 전체적인 형태는 전투용에 걸맞게 개조해 단순화했다. 뒷좌석은 기관총을 쏠 수 있도록 제작했으며 탑승자 전원이 사방으로

총을 쏠 수 있게 설계됐다. 또한 기존 엔진을 드러내고 경주용 랠리카의 엔진을 넣었으며 소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머플러도 교체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차량은 다소 어설피 보이지만 전투차량으로 손색이 없다는 것이 정비공들의 주장이다. 차량 개조를 이끌고 있는 블로디미르 타르호프는 "군인들이 편하게 탑승하고 전장에서 조용히 그리고 잘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 목표" 라면서 "정보 수집 및 작전 수행에 매우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조에 필요한 금속과 부품들은 모두 지역 사업가들의 후원을 받았다"면서 "향후 최전선에서 사용할 지프와 미니버스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rfer.org

남자가 축구장 출입금지 판결 받은 이유



▲ 아르헨티나 벨그라노 축구팀 응원단. 사진=airedesantafe.com.ar

밀린 양육비를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축구경기만 보러 다닌 남자에게 축구장 출입금지령이 떨어졌다.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법원은 최근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자녀의 생계가 걸린 의무를 외면했다"며 피고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피고는 2019년 부인과 헤어졌다. 7살 된 아들은 헤어진 부인이 맡게 됐다. 이때부터 피고는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지만 피고는 단 한 번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아들의 생계에 무관심한 피고는 코르도바에 연고를 둔 프로축구단 벨그라노의 열렬 팬으로 벨그라노의 경기가 있을 때마다 경기장을 찾았다. 심지어 벨그라노가 원정 경기를 할 때면 장거리 여행을 불사하고 팀을 좇아다니면서 현장에서 응원을 했다.

법원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피고의 그릇된 행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축구장 출입을 금하는 동시에 코르도바에서의 이탈도 금지했다. 원정경기를 따라다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송을 낸 전 부인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양육비에 대한 권리를 기본적 인권이라고 봤다"면서 "피고 측이 건전한 취미를 금하는 건 가혹하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밀린 양육비를 전액 지급하기까지 금지령은 풀리지 않을 것"이라며 "전 부인 측은 어떤 합의도 받아줄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콜롬비아 보고타에 60년 만에 눈 펑펑

때 이른 폭염과 가뭄 등으로 북중미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남미에선 수십 년 만에 펑펑 눈이 내렸다. 기상 전문가들은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지는 라니냐의 심술이 심해지면서 예측하지 못한 기상조건이 전개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남미 콜롬비아 보고타의 수마파스 지역. 대도시인 수도 보고타의 일부이지만 마치 농촌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수마파스에는 지난 24일 눈이 내렸다.



▲ 60년 만에 눈이 내린 보고타의 수마파스 지역. 사진=thecitypaperbogota.com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자 주민들은 저마다 뛰쳐나와 아이들처럼 눈놀이를 즐겼다. 청년 하비에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을 본다"면서 "우리 동네에서 눈을 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감격에 겨워 말했다. 동네 사람 대부분은 하비에르와 비슷한 심경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수마파스에 눈이 내린 건 60년 만이기 때문이다.

남미에는 눈이 내리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남극과 가까운 아르헨티나와 칠레 남부에는 동

절기에 적설량 2-3m 정도의 큰눈이 내리는 곳도 있다. 하지만 카리브 바다를 낀 국가 콜롬비아에서는 눈 구경하기가 어렵다.

기상전문가들은 "매년 날씨가 더워지면서 빙하와 만년설까지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60년 만에 수마파스에 눈이 내린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라니냐가 예측불허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척추 디스크 통증에서 완전해방!!

풍부한 경험의 척추전문 의사와 최첨단 의료기가 만났습니다

30년간 척추디스크 및 좌골신경통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는 윤동준 척추신경병원에서는, 21세기가 낳은 혁신적인 최첨단 무중력 압력감소 치료기 DRX9000을 갖추고 90% 이상의 현저히 높은 완치율로 고통없는 치료방법으로 다양한 척추디스크 질환을 치료해 드리고 있습니다.



Dr. 윤동준
서울대학교/ UC Irvine
LA 척추신경의대
CA척추신경보도 전문의
CA척추신경협회 정회원
미주척추신경협회 정회원
가든 그로브 개업 30년

- 진료과목 (각종 근육, 신경장애 및 스트레스성 통증)**
- 머리** 두통/어지럼증/안면마비증세
 - 목** 목 디스크 (팔과 손가락 통증 및 마비증상 동반) / 목 통증 및 뻣뻣한 증상
 - 어깨** 굳거나 빠진 통증/어깨가 안돌아가는 증상 (Frozen Shoulder) / 오십견/견비통
 - 등** 척추측만증 (Scoliosis) 특수교정 (특히 초등학교 때 조기 검진중요)
 - 허리** 허리디스크 및 협착증 (엉치, 다리, 발바닥 및 발가락 저림, 마비증상 동반) / 퇴행성 관절염 / 요통 / 산후 허리통증
 - 팔** 팔꿈치 통증 / Tennis Elbow / 손목 / Carpal Tunnel Syndrome / 손, 손가락 저림증 및 무감각 증상
 - 다리** 좌골 신경통 (다리, 발바닥, 발가락 통증, 저림 및 마비증상 동반) / 무릎통증 / 발목통증 / 변종상



척추디스크 치료 30년 이상의 임상경험 최첨단 척추디스크 치료기가 함께 해 최고의 결과를 자부합니다!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환영

교통사고 및 각종 사고 후유증 전문치료/ 목-허리 디스크 탈출증/ 좌골신경통/ 퇴행성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만성요통